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회포를 쓰다

書懷

하늘 뜻이 뜬 인생에 각박한 줄 짐짓 알아
故知天意薄浮生
험난함과 갖은 고난 질리도록 겪었네.
險阻艱難實飽更
온갖 일들 따져봐야 모두 다 외물(外物)일 뿐
萬事升除都外物
한 몸의 기림 비방 모두다 허명(虛名)일세.
一身譽毀擄虛名
문장은 제나라의 기운 있음 못 면했고
文章不免有齊氣
머뭇이로 여찌 능히 월나라 소리 없을런가
旅寓豈能無越聲
한 맘중 슬픈 노래 터럭마져 세려하니
半夜悲歌頭欲白
사람 향해 환한 등불 너무도 알입구나.
赤憎燈火向人明

근심을 달래며

遣悶

절역에 머물면서 세월만 재촉하다
絕域淹留歲月催
흰 머리 근심겨워 망향파에 오르네.
白頭愁望望鄉臺
찬 못에 밤들자 어룡의 기운 있고
寒潭夜識魚龍氣
옛 물가 가을이라 기러기 울음 슬퍼.
古渚秋聞鴻雁哀
전쟁은 끝났는데 백성 더욱 괴롭고
兵甲定來民更苦
장난 이들 등용된 뒤 일은 더욱 불만해.
倭賢登後事堪咍
어린 시절 알던 이들 지금은 벼슬길에
少年相識今要路
편지를 부쳐 봐도 오래도록 답장 없네.
一寄封書久未回

제나라 기운 : 문장의 품격이 느긋한 것을 말함. 월나라 소리 :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은 것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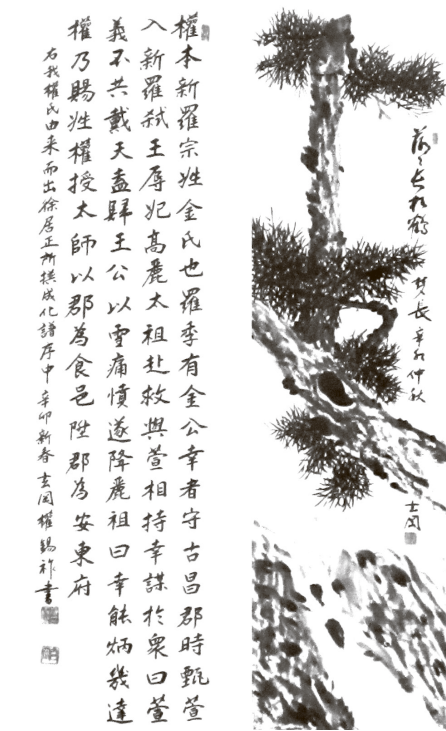
玄岡 權錫祚書藝展



서예가 玄岡 權錫祚書藝展이 지난 11월 16-20일까지, 대구 중앙도서관 갤러리에서 심산 윤종식 대한민국 낙동에술협회 이사장, 학정 이

수학사, 권순호 대구종친회장, 정장년회장, 서도관계인사와 일반관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전시회에서 友人 학정 이수학씨는 추사에서 玄岡兄이 70古稀를 넘긴 나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개인전을 가지게 된것을 축하 하오며 4년전에 本人의 수필집인(空手來, 空手去) 冊子에 題字 글씨를 써준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서예계에서 “겨울 산마루에 외롭게 서 있는 빼어난 한그루의 소나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심산 윤종식 대한민국 낙동에술협회 이사장은 추사말을 통해 玄岡선생의 글씨는 元章의 體를 받아 一筆揮之하면 平沙落雁이요. 水流花開라 보는이로 하여금 감흥하지 않을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문인화까지 하시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으며 극명준역의 정신으로 타의 귀범이 되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로 살아가시는 선생의 집념에 찬사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玄岡 권석조 서예가는 인사말에서 바쁘신 시간을 내어 저의 미숙하고, 부족한 작품을 보시려오신 여러 선생님들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제가 붓을 잡은지 근 20여년이 되어 이번 전시회 준비를 하여보니 예술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저의 작품을 보고 많은 질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는 92년 2월 한민 정인화 선생님의 문화에 들어가 5년간 배우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작고 하시어, 심산 윤종식 선생님의 문화생이 되어 15여년간 사사 받았으며, 금번 전시에도 자문, 지도를 받았으며, 또한 소석 권석우 형님이 서울에서 서예학원을 하실 때 제가 가서 많은 체분을 가져와서 배웠고 지금까지 이어서 전시회 “컷팅을 하고, 권석조씨가 출판한 서도 100여점 중” 安東權氏得姓由來 서거정소찬성화보서증의 작품을 설명, 안 내했으며, 현실속으로 끌어들이고 유추와 재현의 서도를 구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현강 권석조씨는 (72, 봉화, 북야공과 36世)는 부친 권수역씨와 모친 박차순 여사에 6남매중 3남으로 태어나, 1967년 서대구세무서에 첫 발령되었으며, 이어 아세아택시경리부장을 거쳐, 78년 대



심자동자 상사를 개입해, 현 경영중에 있으며, 대구중고 등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대구종친회 부회장, 재구봉화향우회 부회장, 대중회 중무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 대구종친회 상임고문으로 문사에 진력하고 있다.

그리고 서예활동으로서는 △대한민국 서예대전(입선, 특선, 특별상, 우수상, 대상, 초대작가) △대한민국 낙동서예대전(특선특별상, 우수상, 문화상, 초대작가·감사) △영남미술대전 특상을 수상했다.

문의처 : (053)964-3834

〈권오복 편집위원〉

권오을 국회의원사무총장

청조근정훈장 수훈

지난 11월 21일 오전 11시, 국회제1접견실에서 지난 5월18~20일까지 개최된,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이바지한 유공으로 권오을 국회의원사무총장이 정부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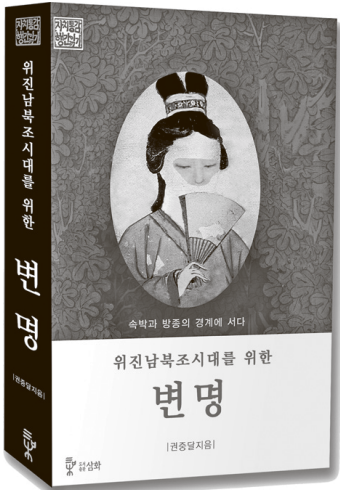
〈양용렬 보좌관〉



권오을 국회의원사무총장이 청조근정훈장을 수상하고 박희태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간안내

위진남북조시대의 변명 출간 - 권중달 교수



본보 자문위원인 권중달교수가 이번에는 ‘위진남북조시대의 변명’을 출간하였다.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는 근 400년간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던 시대이다.

북방에 있던 오호(五胡)가 중원 땅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고, 한족(漢族)

이 세운 나라는 양자강유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전후한 400년간 충성과 효도를 기본으로 하는 유학을 국가 이념으로 하여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잡았지만 한왕조가 멸망하게 되자 유교의 의례가 사람을 구속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다 깨버렸다.

결과적으로 어떤 황후는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미소년을 잡아가다 황궁에서 음란한 것을 서슴지 않았다. 또 어떤 관리는 모친상을 당하였는데도 분상하지 않고 두런 바둑을 다 두고 술을 잔뜩 먹고 잤다.

또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거문고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 다 죽이는 황제도 있었다. 마치 오늘날 문지 마 살인을 하고, 이혼을 밥 먹듯 하는 것처럼 기행과 일탈이 판치는 세상인 것이다.

이 책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기행과 일탈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탈과 기행을 살펴보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위진남북조시대의 이러한 일탈은 유교적 속박을 벗어나고자 하는 풍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나친 속박의 역사 속에서 자유를 추구한 것이 한 발짝 넘어 간 것이다.

사회는 지나친 속박이 있게 되면 이에 반발하여 자유를 추구하는 풍조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가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자유의 추구가 무한정 뻗어나가서 개인의 일탈과 사회와 국가의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도서출판 삼화간 / 20,000원

권혁웅 시인, 평론가 ‘몬스터 멜랑콜리아’ 발간



‘두근두근’ 등 ‘신화에 숨은 열여섯가지 사랑의 코드’를 펴냈다.

문의처 : (02)515-2000(주)민음사
〈권오복 편집위원〉

특별연재

국헌공 權弼과 漢文小說

■ 申海鎭(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로전〉

번역과 주석

동사잡록본 〈강로전〉

〈지난호에 이어서〉

18

“나는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청현직

(淸縣職) 업신여기듯이 두루 역임하였건만, 늘그막에 기구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련하게 여기는 바가 되었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음란한 자에게는 화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다.

한평생 한 일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유독 생각나는 것은 젊은 시절에 의기가 날카롭고 탁월하여 대각(臺閣)에 출입하면서 누가 나를 조금만 언짢게 해도 반드시 그 자를 해친 것이 한 일이 아니었다

는 것이다.

하늘이 이 때문에 나에게 이런 나쁜 업보(惡報)를 내리는 것인가?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상제께서 혁혁히 굽어보시니, 사람은 숙여도 하늘은 속일 수가 없구나.

말을 마치자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돌연 죽었다.

친장군 강인은 그의 죽음에 곡을 하며 선영의 자리에 장사지내도록 허락하였다.

지금도 흥립의 무덤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무덤을 가리키며 ‘강추의묘(姜鋹墳)라 말한다’고 한다.

나는 일찍이 강흥립이 선조(先朝)의 옛 종신(從臣)으로서 은혜와 의리를 저버린 것을 애통히 여겼는데, 그 하나는 전군을 데리고 오랑캐에게 항복할 것이요, 둘은 죄 없는 백성들을 무참히 죽인

것이요, 셋은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을 품고분수에 넘친 일을 바란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일은 대강만 들었을 뿐 자세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서쪽으로 묘향산(妙香山)을 유람하는 도중에 우연히 한 노승(老僧)을 만났는데, 자못 총명하고 문자를 알았으며 얼굴에 화살 맞은 흉터가 있었다. 내가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그 중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재차 물은 후에야 대답하였다.”

제가 어려서부터 산수를 좋아하여 기묘하고 뛰어난 경치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금성만에 있는 한 절에서 흥립을 만났습니다.

보자 서로 가까워져 그의 서기(書記)가 되어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

다. 무오년(광해군10, 1618) 이후에는 제가 오랑캐를 징벌하는 군인이 되어 온갖 괴롭고 험난한 일을 두루 겪었습니다. 그 후 흥립이 죽자 다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의 흉터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만약 흥립이 오랑캐를 끌어들여 우리 조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어찌 부모님이 남겨주신 신체에 훼손함이 있었겠소니까?”

곧 울음을 삼키고 말을 잊지 못했으나, 얼굴의 흉터는 안주성(安州城)에서 화살을 맞은 상처였던 것이다. 이어서 무오년부터 정묘년까지의일을 조목 하나하나에 따라 서술하니, 그 시작과 끝이 위와 같이 자제하였다.

그 노승은 또 말하였다.

“빈승(貧僧)은 강흥립과 정이 형제처럼 매우 두터운 사이입니다.

이러한 사연의 전말을 저는 늘 숨겨왔었는데, 오늘 저는 내력을 물으시기에 저도 모르게 실토하여 저의 입에서 나와 당신의 귀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함부로 발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중들도 오히려 자신의 주인을 저버리지 않거늘, 오랑캐의 주구(走狗)가 되어 도리어 세족(世族)의 의관을 벗어 던졌으니 어찌하여야 하였는가? 하늘에게 지 사무친 죄악과 만고에 없는 흉악은 말해도 된다고 하지만 말을 하면 길어질 뿐이다.

승정(崇禎) 경오년(인조8, 1630) 가을에 무언자(無言子)가 기록하다.

〈끝〉

마포종친회 1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1월 월례회」(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1월 26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가촌(가마술설령탕) : 02)702-5047, 011-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⑤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⑥번출구→공덕오거리→르네상스타워(원)→공덕지구대(파출소)뒤→우가촌(설령탕)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 총 무 권일부 : 02)335-1085, 010-3796-6980

2012년 1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권영혁 사장

- 안동권씨 대종원 부총재
-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 학술 부위원장
- 백송한약방(白松韓藥房) 대표

權寧赫

(서천, 추밀공파 34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77-1(경동한약상가 5번출구, 기업은행 1층)
전화 : 02-963-5951 팩스 : 02-963-5951

핸드폰 : 010-3273-9464